

# 이상한 나라의 '오픈하이머 호소인'들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픈하이머는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조국에 선사하고도 간첩으로 의심받다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억울'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의 삶을 다른 대표적인 전기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인 것도 억울함을 강조한 제목이다.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다가 제우스에게 벌받은 프로메테우스처럼 원자폭탄을 만들고도 국가에 버림받았다는 의미다. 지난날 국내 개봉한 영화 '오픈하이머'도 그를 누명 쓰고 쫓겨난 인물로 그렸다.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도 그를 억울하게 누명 쓴 오픈하이머라고 했다. 국회 회기 중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해놓고도 법적 잘못은 없다는 말로 국민적 분노를 산 국회의원도 같은 부류다. 이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토로할 뿐,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외면한다. 이런 태도가 보여주는 의미는 명백하다. 공직 책임감의 실종이다.

오픈하이머가 국가 기밀 접근권을 빼앗기고 공직에서 물러난 것이 단지 그가 받은 간첩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오픈하이머를 원자탄 개발 팀 책임자로 발탁했던 그로브스 장군은 보안 청

문회에 소환당한 오픈하이머를 간첩이 아니라며 적극 변호했다. 그런데도 그를 공직에서 몰아내는 것엔 동의했다. 원자력 기밀 접근을 계속 허용하기엔 국가가 지게 될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오픈하이머는 동생과 아내, 내연녀, 다수의 친구가 공산주의자였다. 자신도 한때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했다. "소련은 2차대전 동맹국이니 핵폭탄 정보를 넘기자"는 유혹도 여러 차례 받았다. 동료 중에서 소련 간첩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로브스는 오픈하이머의 결백을 믿으면서도 그에게 원자력 기밀 접근권을 주는 데 동의하는

나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던 것이다. 오픈하이머도 기밀 접근권 회수 결정을 받아들였다. 공직에서 쫓겨난 그에게 주변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다른 나라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며 거부했다. 개인적 억울함보다 국가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여겼기에 보일 수 있었던 태도다. 이런 그에게 국가도 공직 접근만 제한했을 뿐,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다.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프로메테우스와 달리 근시안적 인간이어서 유혹에 잘 넘어갔다. 제우스는 불을 갖게 된 인간을 혼낼 목적으로 에피메테우스에게 판도라를 보냈다. 판도라의 미모에 반한 에피메테우스는 "신이 주는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는 형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후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악덕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대표, 장관, 시장, 국회의원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공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법적 시비에 휘말린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동안 개인의 신원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로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조롱, 환멸과 불신을 키웠다. 점에서는 억울한 오픈하이머일 수 없다. 기껏해야 오픈하이머 호소인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세상에 혼돈을 초래한 에피메테우스들일 뿐이다.

김준의 맛과 삶 [154]

## 고흥 돌문어 숙회

가을은 전어 철이다. 그런데 고소한 전어구이는 좀 더 기다리자. 그보다는 돌문어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돌문어는 전남 여수와 고흥 그리고 충남 서천 일대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여수와 고흥의 돌문어는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왜 그럴까.

문어는 돌문어와 피문어로 나뉜다. 피문어가 동해를 상징하는 문어라면 돌문어는 남해를 상징한다. 물론 제주 해역이나 서해에서도 문어가 잡힌다. 특히 제주에서 잡히는 돌문어는 값도 좋고 맛도 좋아 해녀들이 즐겨 찾는다. 고흥 돌문어는 숙회 외에 죽으로 즐기기도 한다. 낙지팔죽으로 널리 알려진 고흥 음식에 낙지가 없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는 녀석이다. 돌문어는 바닷가에서 잡는 문어라 맛이 좋다. 다른 이

름으로 꽃문어라고 한다. 돌문어잡이는 통발과 단지와 낚시로 한다. 통발로 잡을 때는 안에 고등어 등 비린내가 물씬 나는 미끼를 넣는다. 단지는 미끼 없이 던져 놓으면 된다. 낚시는 어민들보다는 생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고흥과 진도와 여수에서 많이 잡히는 돌문어다.

고흥 멸치잡이를 많이 하는 화도에서 돌문어가 빨랫줄에 걸렸다. 제사상에 올리려는 모양이다. 멸치잡이 낚장망에 선물처럼 들어온 돌문어를 손질해 맛봤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이 필자의 시골집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이 시장에서 낙지와 문어와 가리맛조개를 사왔다. 그는 문어를 삶아 때 물을 넣지 않는다. 문어가 푹은



물로도 충분히 기쁘다. 삶아지기 시작하면 약불로 졸이고 마늘을 넣어 풍미를 올리고 양파와 가는 파를 썰어 올린 후 불을 끄고 남은 불로 숙성시킨다. 조리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 간단할수록 원재료 맛은 더 깊다. 여기에 필자가 최애하는 가리맛조개점이 더해졌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자작하게 끓여낸 국물이 더 진해진다. 여수 여자만의 가리맛조개와 붓돌바다의 문어가 밥상에 올랐다. 돌인 듯 한 몸인 갯벌과 바다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김정은·푸틴의 핵잠수함 거래 강력하게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등을 지원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졌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본격화한 건 작년년부터지만 러시아 용병 회사 바그너그룹을 통한 우회 지원 형태였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북·러 간 무기 직거래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도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을 그냥 내줄 리 없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함대 부두, 우주 발사체 기지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의 공개 지시에 따라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에 체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찰위성 발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 연속 실패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다.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만나 이 기술 이전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현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모두 소련제로 1980년대 도입한 미그-29가 최신행이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숙원인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특히 북한이 핵 SLBM(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우리의 북핵 감시는 무력화된다. 푸틴과 김정은의 거래를 주시하고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현실화되면 비상 사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푸틴이 북한에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첨단 전투기와 같은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치명적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에 그치고 있지만 푸틴이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제는 북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우리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과 본격 논의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 일만 나면 北이 지령 내리고, 한국서 그대로 실행된다니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일부 세력과 지하조직 등에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라'고 긴급 지령을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은 시위 장소로 일본대사관과 광화문광장 주변까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진보대학생 및 소속 대학생 등은 지난날 2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건물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은 민주당과 함께 광화문 사거리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작년 헬리언 참가 때도 북한은 민노총 간부 등에게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등을 전개하라'는 지령문을 하달했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정했다. 실제 헬리언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국정조사 서명 운동과 촛불 집회, 추모제도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은 '반노 분출을 위한 조직사업' 지침도

내렸는데 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 투쟁 대회를 열었다. 북한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 때도 '모든 통일·애국 세력이 연대하라'고 지령문을 보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 때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북 지침에 따라 민노총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은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당시 북한은 '공안 탄압으로 돌아가라'는 지령문을 보냈다. 간첩 혐의로 구속된 총북동지회는 2019년부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릴레이 시위와 서명 운동, 규탄 회견 등을 열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반대 시위를 하려는 북 지령을 받고 활동비까지 받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북이 지령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좌파 단체들은 이를 바꿔 달면서 광우병 시위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세월호 집회, 사드 반대 운동, 오염수 반대 집회 등을 이끌어왔다. 그 뒤에도 북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이 7년 만에 중단됐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도입해 도지사가 된 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올해 예산 안에서 이 사업을 뺐고, 성남 시의회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부터 청년의 취업이나 능력 개발에 도움 되지 않는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처음 시작한 성남시에서 먼저 중단된 것이다.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단정장을 맡은 남양주·구리시 등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시작인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된 돈이 자기계발(11%)보다 식료품 구매(73%) 등에 주로 소비돼 제

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할인된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돼 4년간 예산 680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사이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2만명 이상 늘어나 청년 빈곤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이 2000여 개에 달한다. 재정 자립도는 형편없는데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 수당, 일부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등 온갖 명분으로 현금 뿌리기를 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이런 포퓰리즘은 지속될 수 없다. 현금 복지의 원조인 청년기본소득처럼 결국 갖다줄 베푼다고,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독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류근일 칼럼  
이념투쟁 ④

## '자유' 가치에 벌컥하는 자들이 반대한민국 추종자... 그게 탈레반!

뉴데일리  
newdaily.co.kr

**한국판 탈레반**

필자가 20대 대학생이던 1960년대 초, 한국 사회운동계 한쪽 구석엔 어딘가 낯설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인상은,

- 1) 도회지(都會地) 문화가 아니라 농촌 문화이고
- 2) 유달리 '민족적'이란 말을 강조하고
- 3) 일본은 말할 것 없고, 서양도 싫어하고
- 4) 고급 지식인·세련된 교양인, 다양하고 높은 공부한 사람울 경계하고
- 5) 근대화·산업화·기술·전문성보다, 민주주의적 농촌공동체를 선호하고
- 6) 보수는 물론, 진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정파는 모조리 적대하는 것 등이었다.

당시 후진국 한국의 극좌는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기 전에 [마오쩌둥+베트남+폴포트+탈레반]이 합쳐진 [증오심+열등감+복수심+광신+단순화]의 종말론적 신앙 비슷한 것이었다. 일종의 [근본주의 교파]일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강조, 그렇게 욱 먹을 일인가? | '다름'을 절대로 용납 못하는 전체주의 사고**

는다. 이념·이론·철학으로선 자기네 하나를 충분하지, 다른 이념이 아니라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제거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누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이념을 세우겠다" 특히 "나는 전체주의 좌익 아닌 자유의 이념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길길이 뛰었다. 이단(異端) 배척하는 식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들도 자유의 이념을 정립하자" "반(反)국가 세력은 진보도 아니고 협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일부가 "웬 강성 우경화냐?" "웬 강경 이념 공세냐?" "저런 성향 아니었는데?"라며 팔짝 뛰는 것을 보자니, 자들이 왜 저럴까, 괴이(怪異)해서 하는 말이다.

정말 이상 반응. 과잉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신념을 굳건히 하자"는 말을 왜 해선 안 되냐? 다른 사람이 다른 이념의 깃발을 들면, 자기들의 [유일한 깃발] 뒤편의 특권적 지위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러는가?

**자유주의를 혐오하는 이상한 풍토**

오래전 일이 생각난다. 1987년 민주화가 오기 조금 전이었다. 우연히 유인물 하나를 보았다. 단순한 '민주화-진

보화' 정도가 아니었다. 극좌였다. 자유주의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당한 정도의 진보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을 내렸다. "이건 아니다."

언론 동료에게 물었다. "학생운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났다. 하나 쓰겠다." 그는 만류했다. "민주화가 되기 전엔 그런 충고도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된다고 느꼈다. 꼭참기로 했다. 얼마 후 민주화가 되었다. 부담감을 털고 거침없이 했다.

"이제부터는 권위주의나 민주화나만 따지지 말고, 민주화에서 극좌 전체주의를 떼어내자." 역시, 일부가 길길이 뛰었다. "웬 다른 이념이냐?"란 시비였다. "이념은 오직 자기들 것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자유'의 신념은 이런 것**

체코의 자유 레지스탕스 투사 밀라다 호라코바(Milada Horáková) 여사가 연상된다.

그녀는 2차 대전 때 나치에 맞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감옥엔 갔다. 연합군이 들어오자 출옥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공산당 통일전선에 가담하길 끝까지 사절했다.

그러곤 모진 고문 끝에 제국주의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 자유의 신념은 이런 것 아닐까?

그런데 이런 신념을 두고 "웬 이념 공세냐?"라고 묻는다면? 그래, 민주적 진보 아닌, [전체주의(totalitarian) 극좌]는 사절이다.

어쨌래? 그리고 자유는 말단의 [실용] 정책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것은 [가치·철학·이념]이다. 인제 알았나?

**류근일 칼럼 더보기**

문대통령은 왜 이념을 강조?... '이념'은 좌파 전유물? 우파는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기 위해 [이념투쟁 ①]

비좌파 주류언론의 기회주의... 왜 문대통령 '이념' 강조에 부정적인가? [이념투쟁 ③]

이념은 좌파 전유물? 우파는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기 위해 [이념투쟁 ②]

총시 베다 박은 민주당의 위선... 북한인권재단 해방 7년째 [이념투쟁 ④]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9월 5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4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